

## ● 에베소서 강해 ●

# 에베소서를 열면서(I)

— 엡 1:1~2 —

옥 성 석

(서울, 충정 장로교회 담임 목사)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복음과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놀라우리만치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집약(集約)하고 있다. 이 서신은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성(그리스도에 의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칼빈이 매우 좋아하였다. 아미테이지 로빈슨(Armitage Robinson)은 이 책을 “사도 바울 서신서들의 왕관”이라고 극찬을 하였다.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이 책을 “인간의 글 중 가장 거룩한 글”이라고 하였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특징이 있고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수를 여기서 깨닫고 감동을 받은 사례들이 허다하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느낌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반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되어 진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믿음과 행함, 신앙과 열매, 구원과 그 구원이 주는 능력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조화있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프린스톤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John Mackay) 박사는 “내 일생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책 때문이다.”라고 간증하곤 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로 부른다. 제 3 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 2 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갔다. 로마에 간 그는 가이사의 시위대 근처에 자비로 얻은 셋집에만 2 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로마의 한 병사와 쇠사슬로 묶여 있었으나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는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때 기록한 책들이 옥중 서신이다.

**이 에베소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1:4).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1:5).

**둘째, 화목을 주제로 삼는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화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종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2:15).

**셋째, 특히 교회를 중요한 주제로 삼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역을 통하여 등장한 '새 사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인종간의 장벽(2:14~16), 남녀의 차별(5:22~23), 세대간의 차이(6:1~4) 및 사회 계급(6:5~9)을 모두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여(5:21)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좃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2).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 ① 이 편지를 누가 썼는가? ②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자는 누구인가?
- ③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서신에서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저자이다

이 서신이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은 1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의심 없이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1820년대에 이르러 독일의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른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대단히 약하다. 브루스(F.F. Bruce)는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만약 이 서신을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 사람은 바울보다 월등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대등한 정도의 깊이를 지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바울에 비견될 만한 영적 통찰력을 지닌 인물을 찾아볼 수 없다 .

서론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인간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곧 그의 종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가는 전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그를 붙들어 세워 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자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그가 쓴 대부분의 서신의 서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의 이 자기 소개를 통해 그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담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확실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의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일종의 자부심까지 담겨져 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바울만 사도인가?

여기 '사도' 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다. 그는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도라는 칭호가 특별히 예수의 열두 제자와 바울에게 붙여진 영광스런 이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칭호가 쓰여지면서 점차 그 사용되어지는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사도들 인즉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의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1:1).

여기에서 이 본문을 주목해 보자.

### 1) 성도들이다

교회 안에 특별한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그들은 거룩했기 때문에 성도라 불림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거룩하다고 불리워지고 있는 자들이다.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 2)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다

‘성도’라는 단어를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성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실함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능동적으로 쓰여지며 동시에 수동적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형용사 피스토스(πιστός)는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한’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 성도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어야 한다. 수동적으로는 ‘신뢰받는, 신실한’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성도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 약속, 일에 신뢰성이 있어

야 한다. 한 마디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 3) 바울의 독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3 개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풍성'이라는 단어이다(1:7, 18, 2:4, 7, 3:8, 15, 16).

또 하나는 '충만'이라는 단어이다(1:23, 24, 3:19, 4:13, 5:18).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 그것은 '안에'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의미하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 4) 에베소에 있다

이 땅에 있다는 의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상이 있고, 여러 가지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 땅에 있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표현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이며,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며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들이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과 에베소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진정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도이자 신실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과 세속 사회에, 그리고 하늘과 땅에 동시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겪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두 왕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좇을 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은 세상에 푹 잠겨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호 계속)